인증서 갱신없이 평생 쓴다… KB의 '모바일 인증' 혁신

KB국민은행 'KB모바일인증서'

자체기술로 개발… 보안성 UP
보안카드·OTP없이 거래 뚝딱
ARS인증으로 최대 5억원 이체
그룹 全계열사서 이용토록 확대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전경.

KB국민은행이 'KB모바일인증서'를 선보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6자리 비밀번호와 ARS인증으로 최대 5억원까지 이체가 가능해졌다.

KB국민은행은 15일 공인인증서로 인한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기술로 개발한 'KB모바일인증서'를 출시했다. KB모바일인증서는 KB국민은행이 개발, 발급하고 보안성까지 책임지는 사설인증서다.

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할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회원가입부터 신규 상품가입까지 모바일에서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다.

입출금통장 개설과 인터넷뱅킹 신규 및 KB모바일인증서 발급이 한번의 거래로 진행돼 가입 절차는 크게 단축됐다. 모바일에서 간단한 가입절차 이후 이체, 상품거래 등 KB국민은행의 풀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로그인은 패턴이나 지문, 페이스 ID(아이폰 이용 고객) 등 고객이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할 수 있다.

보안카드나 OTP(일회용 비밀번호)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고객편의성이 크게 확대됐다는 평가다.

이전까지는 모바일 뱅킹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이체할 경우 보안매체 비밀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야 했다. 반면 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하면 200만원 이하는 계좌비밀번호만으로 이체가 가능하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 계좌비밀번호 및 간편비밀번호 6자리만으로 이체할 수 있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대 5억원까지 계좌비밀번호 및 간편비밀번호6자리와 ARS 인증을 통해 이체할 수 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도 특징이다. 한 번 발급받으면 인증서를 폐기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 발급받은 인증서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가 되므로 미사용 인증서에 대한 고객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또 국세청 연말정산이나 각종 정부민원서류 발급 거래, 모바일 대출 신청 등 공인인증서가 필수인 경우에도 KB모바일인증서만 있으면 보안카드나 OTP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KB모바일인증서의 사용을 KB금융그룹 내 계열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동일 금융그룹이라도 계열사별로 이용하는 인증서가 달랐다"며 "KB모바일인증서는 이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에서 검증된 사설인증서로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채널처럼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수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모바일인증서는 휴대폰의 특수 보안영역에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영국 보안업체인 트러스토닉사의 TAP(Trustonic Application Protection) 솔루션을 적용했으며, 인증서의 유효성과 비밀번호를 검증하는 알고리즘은 KB국민은행 자체 기술로 개발해 안정성과 보안성을 강화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저축은행중앙회-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청소년 콘텐츠 개발 등 금융교육 '맞손'

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와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이하 청교협)는 15일 청소년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저축은행업권의 금융교육에 활용할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고, 금융교육 프로그램 관련 강사 지원 및 양성을 위한 연수지원 등 금융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축은행업권의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재식 중앙회장은 "최근 금융소비자의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저축은행 업권도 청소년 등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금융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회는 회원사인 저축은행

최병주 저축은행중앙회 상무(오른쪽)와 박홍신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사무국장이 15일 청소년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실시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니어 등 업계의 주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민영 기자 hong93@

"이중환전 NO… 위안화로 유학비 직접 송금"

NH농협은행 '위안화유학비송금'

고객 수요 반영… 당일 수령 가능

NH농협은행은 중국에 유학하는 자녀의 대학등록금 등을 중국 교통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위안화(CNY)로 직접 송금하는 '위안화유학비송금'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위안화유학비송금은 중국 유학생 또는 중국에 유학하는 자녀가 있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내 대학교 등록금과 해외유학생 본인 거주목적의 부동산 임차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이용할 수 있다. 등록금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해 전국의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기존 미국 달러로 송금한 후 위안화로 수령하는 방식 대비 위안화로 직접 송금해 이중환전으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중국 내 2700여 교통은행 전 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영업일 3시 이전에 송금하면 중국에서 당일에 수령할 수 있다.

상품출시를 기념해 올해 말까지 해외송금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고객은 전신료 8000원(해외중계수수료 별도)만 부담하면 중국에 송금할 수 있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위안화로 직접 중국에 송금하기 원하는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교통은행과 함께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며 "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편리하고 저렴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카카오뱅크 천만고객 돌파 기념 '5% 예금 특판'

21일까지 사전 응모고객 대상

카카도뱅크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1000만 고객과 함께하는 특별한 일주일 '카카오뱅크 천만위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첫날인 월요일(22일)에는 카카오뱅크 1년 만기 예금의 2.5배인 연 5%(세전) 이자를 주는 예금(만기 1년)을 10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특판 예금은 15일부터 21일까지 사전 응모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가입 가능하다.

23일은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CGV 영화 티켓 1만장을 증정한다. 24일에 '26주적금' 새로 개설한 고객에게는 만기 달성시 쌓인 이자의 두 배를 준다.

25일은 5000달러 이하 해외 송금 고객에 한해 송금 수수료와 환전 비용을 모두 되돌려주는 '해외송금 비용 완전무료' 이벤트를, 26일에는 간편이체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0여명에게 나이키 에어맥스를 증정한다.

주말인 27, 28일에는 하루 6만5000명에게 카카오T 택시 5000원 할인 쿠폰 등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

첫 급여이체 고객에 '갤럭시S10' 등 경품

대상자 자동 응모, 1125명에 혜택

KB국민은행은 오는 10월 말까지 신규 급여 이체 직장인을 대상으로 '급여이체에 대한 낯선 고민~, KB와 함께라면 날선 선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KB국민은행 계좌로 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처음 이체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1등(5명) 갤럭시S10 128GB 플라밍고 핑크 ▲2등(20명)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 ▲3등(100명) 메가박스 2인 모바일 일반관람권(2D) ▲4등(1,000명) 스타벅스카페아메리카노 모바일상품권 등 총 1125명에게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벤트 응모는 자동으로 신청되며, 당첨자는 오는 11월 20일 국민은행 홈페이지, KB스타뱅킹, 리브(Lii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신한은행 "모바일서 대리인 지정하세요"

'쏠 위임장' 서비스 시행
통장 인감변경 등에 도입

신한은행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쏠(SOL) 위임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쏠 위임장 서비스는 대리인을 통한 업무처리를 원하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업무처리 당사자가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하고, 대리인이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해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특히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고객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업무처리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해 위임장에 '영사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아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많았다.

쏠 위임장 서비스는 고객이 모바일뱅킹 '쏠'에 접속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위임 내용을 작성한 후 공인인증 전자서명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진행된다. 대리인은 위임장 접수 메시지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먼저 ▲통장 재발행·인감변경 ▲미성년 자녀 계좌해지 ▲거래내역서 발급▲사망자 예금계좌의 상속·해지 업무에 대해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차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쏠 위임장 서비스 시행으로 위임장 작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금융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업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